



# 아버이의 사랑으로 행복넘치는 밤

여기에 어느 한 나라의 인더베르에 실린 글이 있다. **《밤이 왔다. 지리는 하나 둘 커지는 내온들의 찬연함으로 아름답게 채색되고있다. 허나 그안에 담긴 삶들은 깊어가는 밤처럼 암담하기만 하다. 큰불을 집을 잃은지 석달이 되어온다. 나와 우리 가족은 오늘 또 어느 처마아래에서 이밤을 보내야 할가.》** 이것은 비단 한지에 나앉은 한 가장만의 절망의 목소리이다.

지구의 자전으로 오는 밤을 두려워하는 불행한 삶들을 행성의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다.

집이 없어 거리를 방황하다가 지하도로 걸기러지 지합을 퍼놓고 그우에서 밤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 극심한 생계난으로 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 자연재해로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은 사람들, 세계를 휩쓰는 무서운 악성병마에 걸려 신음하는 사람들, 남을 강탈하려고 밤을 기다

리는 강도들의 과력으로 되지 않음에 하는 두려움으로 공포의 밤을 보내는이들, 한 푼의 돈에 청춘의 넘과 육체를 팔며 **《밤꽃》**으로 사는 처녀들에게는 밤이 즐거울수 없고 두려운것이다.

행성의 여기저기에서 세계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술과 절망, 두려움과 공포속에 밤을 보낼 때 동방의 조선에서는 행복의 밤, 환희의 밤이 펼쳐지고있다.

불밝은 집집의 창가마다에서는 행복의 노래소리, 웃음소리들이 흘러나오고 공인과 유원지들에서는 기쁨과 환희에 젖은 사람들이 밤이 지새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고있다. 또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 위훈을 세운 지난날에 대한 추억과 보다 찬란할 레일에 대한 희망을 꿈에 담고 단잠에 든 사람들도 있다. 평양의 화성지구를 비롯하여 수도와 지방의 곳곳은 깊은 밤에도 인민의 락

원, 인민들이 복락을 누릴 행복의 보금자리를 더 많이 일떠세우기 위한 창조와 건설의 불꽃으로 불야성을 이루고있다. 자연의 태양은 모습을 감추었지만 세계를 경탄과 흥분으로 들끓게 한 조선인민혁명군장군 90동경축 열병식을 비롯한 위대한 승리자들의 경축행사들도 천지를 대낮처럼 환히 밝히며 진행되고있다.

이런 전승절에도 승리로 자랑하는 환희로운 밤이 펼쳐졌다. 어느 한 작가가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다듯이 공화국인민들에게 있어서 밤은 지새지 말라는 노래가 저절로 흘러나오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밤이다.

과연 어느분이 이렇듯 눈부신 밤을 펼쳐주셨는가. 눈물없는 들을 수 없는 현실과 로고의 이야기들이 이 나라의 아름다운 밤들에 흐르고있다.

자정을 가까이하러 어느 깊은 밤 한대의 새형의 무궤도전차의 수도의 거리를 달리 고있었다. 그 무궤도전차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타고계시었다.

결만 보아서는 새로 만든 무궤도전차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알수 없다고, 무궤도전차를 타고다니 인민들의 립장에 서서 부족점이 없는가를 꼼꼼히 살펴보고자 하시며 공화국의 로동계급이 자랑하는 힘과 기술로 만든 무궤도전차에 오르신 경애하는 원수님.

무궤도전차를 타보니 편안하고 민음이 간다고, 완충장치가 좋고 진동과 소음이 없으며 속도도 괜찮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무궤도전차의 의장품들까지 하나하나 세심히 살펴 보시었다.

인민들이 행복의 요람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고있을 때 인민의 그 꿈을 현실로 꽃피워주시려고 무수한 밤을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이다.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인민들의 행복의 꿈만을 꽃피워 주실것이 아니었다.

인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기 바치신 송고한 헌신과 로고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 나라의 밤들에는 새겨져있다.

언제인가 최전연대에 위치한 개성시에 나라의 방역장벽에 파뢰구를 벌수 있는 뜻밖의 위험이 조성되어 봉쇄조치가 취해졌을 때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개성시민들의 건강과 생활이 녀려지시어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었으며 어느 날 깊은 밤에는 전화로 시의

책임일군을 찾으시어 시민들의 생활에 사소한 불편도 없게 따듯이 돌봐줄데 대하여 은정어린 말씀을 하시었다. 돌발적인 비상방역상황으로 뜻하지 않은 재앙이 닥쳐들었던 최근 몇달여간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느 하루라도 마음을 놓으시고 중요회의들을 편이어서 소집하시도 사랑의 조치들을 취해주시었다.

깊은 밤 수도의 약국들을 찾으시어 인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 배부신 사랑과 은정은 또 얼마나 만사함을 뜨거운 격정으로 뚫어 주셨던가.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인민의 영원한 존엄과 안일을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새우신 밤은 또 얼마이던가. 그 무수한 밤들에 인민의 아버지께서 공화국의 절대적인 힘을 떠올리시기 위해 헤쳐가신 위험천만한 화성길, 격랑하는 바다길들이 수놓아져있고 우리 공화국의 불가항력을 안고 우주만리로 솟구쳐오른 주체병기들의 눈부신 화광이 비껴있다. 참으로 공화국의 모든 밤들은 인민의 행복을 지켜주고 꽃피워주기 위해 바치는 위대한 인민의 수령의 끝없는 사색과 로고, 헌신의 시간으로 되고있다.

하기에 공화국의 밤은 당중앙창가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으로 언제나 밝고 아름다운것이다.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 절세 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였기에 공화국의 밤은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값없는 승리에 대한 추억, 보람찬 생활에 대한 기쁨, 더 밝은 레일에 대한 희망을 아름답게 새겨주고있는 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 단숨에 오르신 수백개의 계단

주제102(2013)년 9월 어느날이었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완공을 앞둔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장을 찾으시었다.

오랜 시간 여러 살림집들에 둘러서서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신 그이께서는 17층에 있다는 실내휴식터에 올라가보라고 하시며 계단쪽으로 향하시었다. 동행한 일군들은 경애하는 그이께서 운전중에 있는 승강기가 가동할 때 올라가 보시는것이 좋겠다고 말씀올리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운동삼아 걸어서 올라가겠다고 말씀하시며 두세개씩 건너짚으시며 계단을 오르시었다.

17층 실내휴식터에 오르시어 열려진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시며 경치가 참 좋다고 환히 웃으시는 그의 웃음은 땀으로 젖어있었다. 이날 경애하는 그이께서 단 한번의 멈춤이 없이 단숨에 오르신 계단은 2백수십여계였다. 2백수십여계, 그것은 단숨에 수자이기 전에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승고한 인민관을 보여주는 인민사랑의 높이였다.

## 43℃의 고온속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제103(2014)년 6월 어느날 평양교외의 어느 한 농장을 찾으시였을 때 있던 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날 오랜 시간에 걸쳐 농장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었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농장에 새로 꾸린 온실들을 돌아보시기 위해 먼저 남새 제1작업반의 온실로 향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제는듯한 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온실의 구석구석을 주의깊게 살펴보시고 작업반장의 자랑쉬인 이야기도 다 들어주시었다. 그러느라 그이께서 온실안에 머물러계시는 시간은 자연히 길어지게 되었다. 그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온실내생산물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한 일군이 경애하는 그이께 온실안의 온도가 43℃이므로 어서 밖으로 나가주시기를 말씀드리었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없다고, 수도시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먹일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한 곳에도 다 가보겠다고 말씀하시었다. 참으로 인민을 위해 그 어떤 고생도 달게 여기시며 멸사복무하시는 위대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본사기자



## 평도의 천재

#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신 자력갱생의 불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온 나라 인민을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행복을 가꾸어나가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당당자, 자강력의 체현자들로 든든히 준비시키고 자력갱생의 투쟁방식으로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이룩해나가는 걸출한 평도자이다.

자력갱생은 간고한 항일대전의 나날에 창조된 고귀한 투쟁정신이고 전통이며 주체조선의 자랑스러운 국풍이다. 공화국이 중증첩첩 겹쌓이는 시련과 난관을 뚫고 헤쳐며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적사변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창조해나가는것은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시신 자강력제일주의가 안아온 력사승승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온 나라에 자력갱생의 정신이 더욱 높이 발휘되도록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오계신다.

주제104(2015)년 7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김중재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를 찾으시었다.

이 공장으로 말 하면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현명한 평도평도에 1960년대초 천리마 대고조의 불길속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짧은 기간에 우리 나라에서 첫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한것을 비롯하여 절세위인들의 평도평도에 자력갱생의 전통을 고수해온 공장이다.

공장을 찾으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 로동자들이 레무땀땀을 흘리며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이들의 자력갱생의 투쟁정신과 창조기공을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이날 공장 로동자들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를 조선로동당창건기념일로 만들데 대한 영

에로운 과업을 맡겨주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하전동차생산을 빠른 시일에 보장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향과 방법들,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문제, 후방사업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세심히 가르쳐주시었다.

지하전동차를 환한 미소속에 보아주시면서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를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낸다는것은 아름답고 반대편 과업이었다. 필요한 부족품만 해도 수천종에 십여만 수천개나 만들어야 하고 발전된 나라들에서도 4~5년이 걸렸다고 하는 지하전동차개발생산을 두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진행한다는것은 보통상식으로서는 어렵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곳 로동자들은 절세위인들께서 안겨주시신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한번도 만들어지지 못한 부분품들을 자체의 힘, 자체의 기술로

로 만들면서 성공의 언덕에로 올라왔다. 이해 10월 자체의 힘으로 특색있는 지하전동차를 생산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너무나 기쁘시어 또다시 기업소를 찾으시었다.

지하전동차를 환한 미소속에 보아주시면서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를 무조건 만들어내도록 한것은 무엇을 하나 만들어도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야 그것이 더욱 소중하고 빛이 난다는 철리를 수일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천백마디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로부터 얼마후인 11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몸소 지하전동차시운전장 지도해주시었다.

뜻깊은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것을 우리

힘, 우리 기술, 우리 자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우리 자원에 의거한 현대화, 이것이 당이 요구하는 현대화라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오늘날 공화국의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자력갱생의 힘찬 동음소리는 이렇듯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나 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승고한 헌신과 로고에 떠들린 자랑찬 결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기본종자, 주체로 힘주어 천명하신 자력갱생, 자강자족!

공화국은 앞으로도 자력갱생을 변형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더 좋은 앞날을 앞당겨올것이다.

림명호

이 땅에 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70년세월을 가까이하고있다.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 10년이 여러번이나 바뀌었지만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의 영웅정신은 승고한 도덕의리의 최고화신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날로 더욱 빛나고있다.

돌이켜보면 새로운 주제100년대가 시작되는 력사적인 해인 주제101(2012)년 7월 27일 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전승절경축행사가 전체 인민의 커다란 관심속에 성대히 진행되었다.

어제 그뿐이었던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승 60돐을 맞으며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도 새로 건설하도록 하시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건설장을 찾으실 때마다 전회의 영웅전사들의 위훈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여야 한다고 하시며 그나큰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 세계적 기원관으로 꾸러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의 그 어디에나 경애하는 그이의 정력적이고도 세심한 평도의 손길이 뜨겁게 어려있다. 사림에서는 전쟁로병들을 도덕의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들로 생각하며 존중하고 귀중히 여긴다고 하시면서 로병들을 위하여 력사가 알지 못하는 사랑의 이야기들을 감동깊이 써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사로운 사랑의 해빛아래 공화국의 전쟁로병들의 삶은 가장 값높은 삶, 승리자의 영광넉넉한 삶으로 빛나고있다.

공화국의 전쟁로병들처럼 긍지높은 세대로 불리며 살아있을 때는 물론 죽어서도 영생하는 삶을 누리는 전쟁참정자들은 그 어디에서든 찾아볼수 없다. 이번 전승 69돐을 기념하는 성대함 경축공

## 전승세대의 삶을 빛내주시는 승고한 인민의 도덕의리

여러 나라들에서 전쟁로병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자들의 별장 경비를 서주거나 자기들의 가슴에서 빛나던 훈장들을 팔았다는 광고를 신문에 내고있을 때 공화국에서 펼쳐지고있는 전쟁로병존대의 이 화복들은 전승세대가 창조한 위대한 정신과 승리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변함없이 이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낳은 승고한 화복이다.

존경하는 로병동지들이라고 값높이 불려주시며 영웅적인 전승세대의 넘과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힘차게, 더욱 강인하게 투쟁함으로써 동지들이 사수한 이 땅에 강대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락원을 기어이 일떠세울것이라고, 로병동지들이 앉이게시기만 해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커다란 힘과 고무로 된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여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리며 부디 귀하신 몸들을 보충하여 오래오래 장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한다.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전승 69돐 기념행사가 끝난 후 전정로병들이 양덕은천문화휴양지의 귀빈으로 출거는 나날을 보내도록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시었다.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인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였기에 추복받은 전승세대의 삶은 변형하는 조국의 력사와 더불어 더욱 빛을 뿌릴것이며 그들의 영웅정신은 빛나게 계승되어 공화국의 발전을 계속 힘있게 추동할것이다.

조성국



얼마전 신장염으로 앓고있던 내가 처방전을 가지고 집근처에 있는 약국에 갔을 때였다. 약국에 들어서자 인민군 군인들이 《안녕하십니까?》 하며 경례를 하는것이였다. 인민사수전의 전장에 서있는 군인들의 경례를 받고보니 이름할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가슴속에 고쳐졌다. 인민군 군인들의 경례, 그들은 방역대전의 사활이 걸린 약품보장전투에 인민군대 군의부분 력량을 투입하는것은 인민군대의 승고한 사명에도 맞을뿐 아니라 인민

국들에 몸소 나가시어 모든 일군들이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안일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나갈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던 그날의 간곡한 당부... 절세위인의 승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심장으로 받아들여갈 마음을 안고 인민군 군의들은 약국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듯이 경례를 하고 환자들의 집을 찾아가도 경례부터 하며 인민들에게 열화같은 정성을 기울이고있는것이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다 말아하는 인민군대가 오늘에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방역대전의 최후대, 돌격대, 방랑병이 되고있다. 그래서 인민들은 어렵고 힘들 때면 군대를 먼저 찾고 제일 반긴다. 약을 받아들고 고맙다고 인사하는 나이에 군인들은 또다시 경례를 하였다. 그 경례에서 위대한 아버지의 불보다 뜨거운 사랑과 정을 더욱 심장으로 느꼈다. 민경남



# 민족 단합의 숭고한 경륜을 전하는 통일전선탑



풍치수려한 대동강변의 쉼에는 통일전선탑이 세워져 있다. 탑이 세워진지는 어느덧 서른두해, 하지만 이 탑으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기지 않고 있다. 왜 사람들은 통일전선탑을 자주 찾는 것인가. 탑은 그리 크지 않아도 바로 이 탑에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해 바치신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민족 단합의 사상과 경륜, 온 겨레를 품에 안아 통일애국의 길에 내세워주고 이끌어주시는 그의 로고와 업적이 어리

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해방후 내외분렬주의세력의 범죄적인 《단선단정》 조작책동으로 민족분열이 고정화될 엄청난 위기가 조성되었던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뜨거운 민족애와 확고부동한 통일애국의 지, 넓은 도량과 포용력으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면 석회의를 발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었다. 외세의 민족분렬책동을 용납하지 않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된 자주독립국가를 일떠세우시려는 아버지수령님

의 뜨거운 조국애, 민족애와 겨레를 위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과거경력과 주의주장을 초월하여 만나주시고 통일애국의 길에 내세워주시는 넓은 도량에 이끌려 북과 남의 56개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들이 평양에 모여 력사적인 련석회의를 가지게 되었었던 것이다. 이 력사적인 회합에는 한생을 반공으로 살았던 사람들까지도 참가하여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남조선에서는 외세의 민족분렬책동에 따라 춤추는 리승만계열의 매국세력을 내놓고는 거의 모든 정

당, 사회단체들이 다 련석회의에 참가하였다.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진행된 력사적인 회합에서 북과 남의 대표들은 조성된 민족적위기를 라개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대책을 토의하여 견해와 행동의 완전한 일치를 이룩하였다. 참으로 4월남북련석회의가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특기할 력사적인 회합으로 길이 빛을 뿌리게 된것은 아버지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그런데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남북련석회의와 쑥섬회의에 참가했던 각계층 남측 인사들을 잊지 않았고 그들의 애국적인 소행이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길이 빛나도록 해주셨다. 주체72(1983)년 9월 6일 새로 건설된 《총성의 다리》 준공식에 나오시어 쑥섬사적을 몸소 발굴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 75(1986)년 8월 26일 쑥섬에 가서 그들의 이름을 새겨넣어 나라의 통일성업에 이바지한 선성들의 공적을 후세에 길이 전해야 한다고 하시었다. 우리는 장사의 해설을 들으며 탑신의 뒤면에 새겨져있는 쑥섬회참가자들의 이름을 한

자두자 읽어보았다. 김규, 김규식, 조소앙, 엄항섭, 조완구, 최홍오... 정녕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란 관계없이, 과거를 불문하고 넓은 도량과 포용력으로 통일애국의 한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뜻에 의하여 당시 쑥섬회의에 참가하였던 참가자들의 이름이 통일전선탑에 영성되어 새겨지게 되었다. 어디 이들뿐인가. 최덕신, 최홍희, 윤이상, 김성락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고 인생전환을 하여 통일애국의 길에서 값높은 삶을 누린 애국인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정녕 아버지수령님의 품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를 안아주고 통일애국의 길로 내세워주는 한없이 넓고 따사로운 품이었다. 오늘날 력사의 중점자이양 높이 솟아 빛나는 통일전선탑은 온 겨레의 마음속에 절세위운을 따르는 길에 민족 단합과 조국통일이 있다는 진리를 아로새기며 빛을 뿌리고 있다.

본사기자 전영민

## 통일을 불러

### 겨레의 사랑을 받는 통일음악가로 (1)



제 38 차 윤이상음악회

윤이상 선생

인간은 자기의 재능을 무엇에 위하여 어디에 바쳐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겨레의 추억속에 담긴 삶으로 영생하는 것인가. 이에 옳은 대답을 주는 것이 세계적인 작곡가인 윤이상 선생의 아름다운 삶이다. \* \* \* 윤이상 선생은 1917년 9월 17일 경상남도에서 볼락한 양반가정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어린시절 감수성이 유별나게 예민했던 그에게 있어 음악은 생의 첫 썩으로 울려났다. 초목을 스쳐가는 바람과 푸른 물결, 파도소리들이 마치도 그에게는 선블로 여겨졌다. 하기에 윤이상 선생은 음악 시간을 그리도 좋아했고 이곳에 사는 바이올린을 켜는 청년에게서 악기도 배우면서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웠다. 나도 작곡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안고 선생은 13살부터 처음에는 간단한 곡을, 다음에는 조금 복잡한 곡을, 그리고는 몇개의 악기를 섞한 경음악 같은 것도 썼다. 음악공부에 집착하는 아들을 그의 아버지가 고운 눈으로 불리 만무하였다. 그때는 음악가 하면 궁쟁이, 화가는 화쟁이라고 천대받던 세월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음악공부를 못하게 했고 바이올린소리가 듣기 싫다고 악기를 마당에 내동댕이치기도 했다. 그러나 그 꿈은 순간이었다. 해방후 남조선에는 미군이 틀고앉아 주인행세를 하고 리승만역도가 미국의 앞잡이로 서울에 들어와 살판쳤다. 당시의 혼란된 정치현실에서 실망을 금할수 없었던 선생은 음악에 전념하리라 마음다지었다. 본사기자

위대한 전승세대에 드리는 숭고한 경의가 온 나라에 굽이치던 전승절의 그날 대양 건너에서 한편의 소식이 들려왔다. 미국 워싱턴에 지난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다가 불귀의 객이 된 미군고용병들의 이름을 새긴 《추모의 벽》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언젠가 어느 한 출판물에서 보았던 미군고용병의 조선전쟁 《경험담》이나의 너러를 치는 것이었다. 《나를 쳐다보는 부상자를 보고 총부리를 겨누면서 나는 참다운 자부심을 느낀다. ... 내가 면바로 판자노리를 겨누며 나의 발사의 결과로 두 개뿔이 날아가고 안공에서 눈알이 쏟아질 때 나는 더없이 가장 멋터어진 사격을 했다. 그것을 안다. ...》 분노의 아픔에 심장이 조여든다. 이른바 《추모의 벽》에는 설사 그대들앞에 있는 것이 어린이나 로인이라 할지라도 그대들의 손이 떨려서 안된다. 명령을 살인마 위치의 이름도 새겨져있을 것이다. 《북조선에는 쓸어도 걸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의 명령에 따라 적십자표식이 있는 병원들에게 서슴없이 대형폭탄을 떨구고 이어 방공호로 뛰어가는 아이들까지 쫓아 기총소사를 해대며 회회락락대던 미군공중비적들의 이름들도 새겨져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또한 새겨져있을 것이다. 이 땅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무고한 인민들을 찢러죽이고 태워죽이고 생매장해죽이고 사지를 찢어죽이다 못해 임신부들의 배를 가르고 태아를 꺼내어 밟아죽인 미군살인귀들의 이름들이... 처녀들과 유부녀들을 릉육

하고도 성차지 않아 철부지 소녀들까지 집합한 미군야만들과 모란봉 영명사며 정방산 성불사의 불상들을 비롯한 귀중한 유물들을 로략질해가고 수많은 문화유산들을 참혹하게 파괴해버린 날강도들의 이름들이... 비단 공화국북반부에서만 있었던가. 지금도 쟁쟁히 메아리쳐온다. 72년전 7월의 그날 충청북도 영동군 로근리에서 터져나오던 처참한 비명소리들이. 피난민들의 머리우에 폭탄을 쏟아부고 기총사격을 가

고했다. 그들, 로근리에서 《귀신도 기가 막혀 통곡할 참극》을 감행한 미기갑사단 77대 인강백정들의 가증스러운 이름들도 《추모의 벽》에는 버젓이 새겨져있을 것이다. 꽃송이를 들고 《추모의 벽》을 찾는 미국인들은 생

히 여기는 온 세상의 정의인들에게 있어서 잔악무도한 전범자들의 이름으로 얼룩진 《추모의 벽》은 미제국주의의 야수적본성을 다시금 새겨보게 하는 분노의 벽으로, 저주의 벽으로 안겨오는 것이다. 무엇때문인가? 어찌하여 미국은 정전이 된지 70년이 되어오는 오늘에 와서 저들의 고용병들을 《참전용사》로, 《전쟁영웅》으로 치켜세우며 이른바 《추모의 벽》을 세우는 놀음을 벌려놓았는가? 단지 죄악에 찬 저들의 과

겠는가. 든건대 《추모의 벽》에는 조선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카투사》(미군부대에서 근무한 남조선피괴군)들의 이름들도 새겨놓았다고 한다. 제2의 조선전쟁이 일어나면 《한미혈맹》이라는 미명하에 또다시 남조선피괴들을 저들의 총알받이로 내몰겠다는 미국의 흑심이 력력히 드러나보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모의 벽》을 가리켜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극구 려찬하는 윤석열적제파당의 작태는 얼마나 가련한가. 하나 우리 공화국을 유린하려 광분하는 미국과 그 앞잡이들의 책동은 삶을 지고 불속에 뛰어들려는 격이 라 해야 할 것이다. 《추모의 벽》에는 뚜렷이 새겨져있을 것이다. 1211고지를 삼켜보려다가 《함정팔》의 무주공혼이 태버린 고용병들의 이름들이, 오산에서와의 군사적대결로 떠돌던 공화국을 겨냥한 각양각색의 전쟁연습들을 계단식으로 확대해나가고있는 미국의 망동이 우리의 가슴을 의분으로 뽕게 한다. 세월은 멀리 흘러왔어도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고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의 야망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 바로 그때문이다. 조선전쟁에서 악몽을 떨친 어제날의 고용병들처럼 오늘의 미군인들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조금도 서슴없이 조선의 평화로운 거리와 마을들에 폭탄을 퍼부으려고, 조선의 너인들과 아이들에게도 주저없이 총부리를 겨누고 추호의 망설임없이 살인마가 되라고 백악관은 워싱턴의 한복판에 떠들썩하게 《추모의 벽》이라는것을 세워놓은 것이 아니

## 수필 《추모의 벽》에서 울리는 장송곡

각해본적이 있느냐?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며 조선전쟁에 나갔던 저들의 혈육들이 이 땅에서 저지른 몸서리치는 만행들을. 무너진 담벼락 불붙는 집 속에서 들려오던 아녀자들의 울부짖음소리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어머니의 젖가슴에 매달려 젖을 찾던 첫머리의 울음소리들, 아이를 찾다가 그가 타 죽어가도 엄마를 찾다가 간이 말라 죽어간 신친의 400여니들과 102어린이들의 피라던 참상을 미국인들은 단 한번이라도 떠올려본적이 있느냐? 실로 조국해방전쟁은 인간과 야수의 대결이었다. 인류의 량심이 준렬히 선 고려했듯이 20세기의 최대의 만행은 미군이 조선에서 감행하였거늘 현대미술의 거장이라 일컫는 프랑수아가 베까소도 《조선에서의 학살만행》이라는 그림을 그려 미군의 친인공노할 죄행을 만천하에 단죄하지 않았던가. 하기에 공화국인민들에게 있어서, 진리와 량심을 소중



장수봉

# 조선반도평화의 과외자, 전쟁대결광들

또다시 벌어진 위험한 전쟁대결

얼마전 남조선군부장들이 미국과 국방장관회담이라는 것을 벌여놓았다. 회담에서는 하반기 합동군사연습 확대 실시, 9월 중 《한미확장억제전략협약》가동, 미전략자산의 남조선전계를 포함한 핵억제태세강화, 그 후의 《핵위협》에 대처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의 실시 등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그 후의 《위협》과 《도발》을 구실로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도를 높이고 북침전쟁도발준비를 차차 늘려가기 위한 위험한 군사적 모의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2022년 하반기 합동군사연습인 《울지 프리덤 실드》를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남조선의 4,000여개의 행정기관과 48만여명의 인원들의 동원하에 진행되는 《울지》연습과 통합하여 확대 실시하기로 한 것을 놓고 보아도 그러하다.

《울지 프리덤 실드》를 비롯한 합동군사연습, 연합훈련들은 지난 시기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점령으로 몰아가는 《울지 프리덤 가디언》과 같은 북침전쟁도발장난의 재현이며 그 연장이다. 남조선의

호전세력이 외세와 함께 이러한 대규모북침전쟁도발장난소동들을 벌일 때마다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최대로 격화되고 일촉즉발의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었다. 이러한 합동전쟁연습을 수십만의 인원이 동원되는 《울지》연습과 통합하여 확대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은 정세를 고의적으로 격화시키려는 위험천만한 망동이다.

전쟁열에 들뜬 남조선호전세력은 최근년간 중시되었던 대규모연합상륙훈련인 《쌍용》합동군사연습까지 재개하려고 날뛰면서 올해 하반기에 11개의 연합훈련을, 다음해 상반기에는 연합대잠수함전훈련을 비롯하여 21개의 연합합동군사연습을 실시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이것은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남조선호전광들의 대결광기가 극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9월 중 《한미확장억제전략협약》가동, 미전략자산의 조선반도전계를 포함한 핵억제태세강화, 그 후의 《핵위협》에 대처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실시하는 문제도 본질에 있어서 미국의 핵무기

를 비롯한 모든 군사적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북침전쟁의 불을 지르기 위한 범법적인 책동이 다. 특히 가까운 시일내에 《북의 핵위협》, 특히 핵사용립단계를 상정해놓고 그에 대처한 미국과 남조선군의 군사적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그 후의 《위협》을 구실로 공화국에 핵선제공격까지 가하려는 용납 못할 기도를 드러낸 것이다.

남조선호전세력이 미국의 가맹기에 매달려 강행하려는 군사적망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각일각 되돌릴수 없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현실은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고 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주되는

원인인, 평화교란자는 다름 아닌 외세와 그와 결탁한 남조선호전광들이라는 것을 명백히 실증하고 있다. 남조선호전광들이 북침전쟁도발을 위해 미국과 반공화국모의를 광분하지만 그것은 상전의 세계패권야망실현의 하수인, 대포박이 되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정세를 위협계선으로 몰아가는 무모한 자멸적망동이다. 그것은 또한 날로 비약하는 공화국의 가용할 군사적강세에 대비한 한자들의 허세성작태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남조선호전광들이 미국과 야합하여 동족을 해치기 위한 전쟁대결책동에 광분할수록 얻어맞는 더 큰 안보불안과 위기, 비참한 종말뿐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얼마전에 남조선군부장은 《업무보고》라는 《협에 의한 평화》를 운운하면서 《북의 핵 및 미사일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압도적인 《한국형3축타격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확보하고 작전태세를 강화한다.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강군》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연합항공모함강습단훈련과 연합상륙훈련을 비롯하여 현대급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는 등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과 훈련을 더욱 강화하려는 기도를 드러냈다.

남조선호전광들의 이러한 망동은 공화국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이고 도전으로 북남관계를 되돌릴수 없는 최악의 국면으로 몰아가고 전쟁의 불구덩이를 더 깊게 만드는 용납 못할 반민적행위이다. 남조선호전광들이 떠드는 《북의 위협》, 《북의 도발》

이란 인민의 안녕과 행복, 자주권수호를 위한 공화국의 일상적이며 자위적인 행동들이다. 동족의 자주권수호를 위한 행동은 모두 《위협》과 《도발》로 오도하고 자기들의 군비강화와 북침전쟁연습, 훈련들은 《대북억제력 확보》라고 미화하는 남조선호전광들의 행태야말로 비논리적이고 이중적이며 유치한 망동이다.

이런 인민의 안녕과 행복, 자주권수호를 위한 공화국의 일상적이며 자위적인 행동들이다. 동족의 자주권수호를 위한 행동은 모두 《위협》과 《도발》로 오도하고 자기들의 군비강화와 북침전쟁연습, 훈련들은 《대북억제력 확보》라고 미화하는 남조선호전광들의 행태야말로 비논리적이고 이중적이며 유치한 망동이다.

이런 인민의 안녕과 행복, 자주권수호를 위한 공화국의 일상적이며 자위적인 행동들이다. 동족의 자주권수호를 위한 행동은 모두 《위협》과 《도발》로 오도하고 자기들의 군비강화와 북침전쟁연습, 훈련들은 《대북억제력 확보》라고 미화하는 남조선호전광들의 행태야말로 비논리적이고 이중적이며 유치한 망동이다.

이런 인민의 안녕과 행복, 자주권수호를 위한 공화국의 일상적이며 자위적인 행동들이다. 동족의 자주권수호를 위한 행동은 모두 《위협》과 《도발》로 오도하고 자기들의 군비강화와 북침전쟁연습, 훈련들은 《대북억제력 확보》라고 미화하는 남조선호전광들의 행태야말로 비논리적이고 이중적이며 유치한 망동이다.

## 식음을 모르는 대결광기

이번에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윤석열역도에게 한 《업무보고》에서 무력강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핵심과제를 밝힌것은 공화국의 불가역적인 군사적강세에 걸맞은 단말미적발약인 동시에 저들의 무분별한 전쟁대결책동이 불러온 참담한 후과에 대한 위구심, 불안감을 드러내며

이번에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윤석열역도에게 한 《업무보고》에서 무력강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핵심과제를 밝힌것은 공화국의 불가역적인 군사적강세에 걸맞은 단말미적발약인 동시에 저들의 무분별한 전쟁대결책동이 불러온 참담한 후과에 대한 위구심, 불안감을 드러내며



## 인권동토대에서 울리는 가소로운 《인권》라령

최근 윤석열역도당이 미국의 《북인권》소동을 편승하여 반공화국 《인권》모략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 미국이 《북조선인권법》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때를 같이하여 윤석열역도당은 《북인권재단》 설립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려고 하는가 하면 2016년에 제정된 《북인권법》을 보다 약질적으로 개악할 기도를 포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남조선내부에서 《북인권》문제를 널리 확산시키는 것과 함께 《북인권대사》를 임명하고 새로 취임하는 유엔 《북조선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동맹, 유엔을 대상으로 한 외교활동을 보다 적극화하는 등 반공화국 《인권》모략책동을 국제적범위로 확산시키려고 발악하고 있다. 윤석열역도당의 이러한

《북인권》소동은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를 전면부정하고 북남관계를 완전파괴에로 몰아가는 반민적행위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가 펼쳐지는 공화국에는 애당초 《인권문제》라는 것이 없으며 사회제도특성상 있을수도 없다. 공화국에서는 국력의 평가기준도 인민의 웃음소리와 경제발전의 목적도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기 위한 것이며 모든 사업의 평가기준도 인민의 요구와 이익으로 되고 있다. 살림집문제 하나만 놓고 보아도 이것을 잘 알 수 있다. 공화국에서는 평범한 근로자들과 지식인들이 현대문명에서 융족된 평양의 보통강장단아락시주령우와 송화거리, 려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와 삼지연시를 비롯하여 도처에 일떠선 사회주의 문명거리, 사회주의선경마을들에

돈 한푼 내지 않고 보금자리를 펴고 최상의 문명을 누리고 있다. 하기에 여러 나라 언론들은 《조선에서는 서방에서는 일반주민들이 꿈도 꾸지 못할 최상의 살림집을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주고 있다》, 《인민을 위하여는 나라가 아니고서는 업도 내지 못할 일이다》, 《조선의 사회주의는 인민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 무엇보다도 빠르고 최상의 수준에서 최고의 속도로 창조하는 진정한 사회주의이다》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조선은 어떠한가. 변화가 사회의 1%도 안 되는 특권계급의 것으로 되고 있고 99%에 달하는 각계각층 인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이 실현될수 없는 꿈으로 되고 있다.

특히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거처할 곳조차 없어져 버린 방향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현실이다. 공화국의 인민들이 사회주의적 조국을 《우리 집》이라고 부르지만 남조선의 각계층은 자기들이 사는 땅을 《망한 민족》, 《혈(지옥)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남조선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아동학대》, 《학교폭력》, 《자살명소》, 《자살예방센터》 등의 말들도 남조선의 처참한 인권실태를 보여주는 산 증거들이다. 현실이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도당이 그 후의 《인권문제》에 대해 떠들고 있는 것이야말로 인민불보지민 제치기도 후고 설치되는 변방사리물과 호랑이무치의 극치, 무덤덤한 양두척도 폭소를 터뜨릴 희비극이 아닐수 없다.

윤석열역도당의 《북인권》소동은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파쇼통치와 반인민적 악정으로 하여 날로 높아가는 저들에 대한 민심의 저주와 규탄의 비사를 탄탄도 틀러보려는 비렬한 정치모략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우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망동은 없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이 윤석열역도당의 동족대결책동을 막다른 집권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망동으로 단죄하면서 반윤석열투쟁에 적극 나서지는 너무도 당연하다. 윤석열역도당은 남을 일군들기 전에 제 집안을 일군들보지, 인권을 폐지해대도 만든 반인권피약무리 인민일애, 세게망신애에 고백하고 응답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신 기 복

윤석열역도당이 경찰을 통제하고 장악하기 위한 《경찰국》을 행정안전부안에 정식 내운 것과 관련하여 남조선내부의 정치적혼란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집권하자마자 법무부와 검찰을 제 심복들로 꾸린 윤석열역도당은 경찰가들이 투위기를 위해 검찰출신들을 위주로 행정안전부안에 경찰제도개선추진위원회를 내온데 이어 얼마전에는 행정안전부안에 《경찰국》을 신설하였다. 역적패당의 이러한 책동이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경찰까지 장악하여 남조선을 말그대로 《검찰공화국》에 이어 《경찰공화국》으로 만들고 부패한 권력을 유지해보려는 반인민적, 반민주적행태라는 것은 더 말할 여지도 없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은 윤석열역도당의 경찰장악책동을 강력히 반대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역도당의 경찰국신설책동에 대해 검찰과 경찰을 앞세워 독재를 실시하겠다는 선전포고, 경찰을 정치에속화하려는 로골적인 반민주적행태로 단죄하면서 당안에 경찰장악지지대책단을 내오는 등 강하게 반발해나서고 있다. 한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행동,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경찰국신설을 주도한 윤석열역도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는가 하면 서울을 비롯한 여러곳들에서 윤석열역도의 경찰장악

윤석열역도당은 민심에 역행하여 자위적인 사상과 진리를 따르려는 마음까지 《보안법》의 칼을 마구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역도당이 막다른 위기에 빠진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진보운동단체들에 대한 탄압선봉을 일러 키고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불을 붙여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있다. 지금 남조선의 민주로총을 비롯한 각계층 단체들은 《로동자들의 단결된 힘으로 윤석열역도당을 끝까지 대항하겠다》, 《공안통치를 부활하려는 시도에 엄중히 경고한다》, 《언론계에 대한 보수집권세력의 경거망동을 규탄한다》, 《보안법을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윤석열역도당의 파쇼탄압책동에 단호히 맞서고 있다. 참다운 삶과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각계층 인민들에 대한 탄압책동은 역적패당이야말로 독재권력유지를 위해서라면 남조선명멸을 파로 물들이는 것도 서슴지 않을 극악한 파쇼광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허유리

##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는 천하바보짓

고대그리스의 우화에 쇠로 만든 단지와 흙으로 만든 단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쇠단지가 흉단지 보고 함께 여행을 떠나자고 하자 흙단지는 자기는 아차하는 순간에 바싹날수 있으니 부엌에 남아있겠다고 한다. 쇠단지가 자기가 막아나서면 그 어떤 굶은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자 흙단지는 귀가 솔깃하여 함께 여행을 떠났었다. 그러나 피로에 지친 쇠단지가 헛발을 짚어 기우뚱하면서 흉단지를 다치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산산조각이 나고말았다. 남한에 불어 덕을 보려다가는 망하게 된다. 생활의 철리를 전하는 우화로서 미국을 등에 업고 추악한 명멸을 부지해보려 하는 윤석열역도당이 반드시 새겨야 할 교훈적인 이야기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최근 윤석열역도당은 미국식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 등을 《보편적가치》로 내세우고 일방적인 편가르기와 친미불평등추진책을 미국의 가치외교에 추종하여 동족대결소동과 친미불평등책동에 매달리고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남조선, 언론, 전문가들은 윤석열역도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앉자마자 미국이 내세우는 《보편적가치》에 편

승하는 대미굴종외교로 《국익》과 《위상제고》 실현이라는 허황한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로 하여 차폐될것은 조선반도정세건과 북남대결약박뿐이라고 평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역도당이 《신북통틀이》와 《북인권》소동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하여 북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북남관계를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불안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또한 윤석열역도당이 《7대국정과제》에 《보편적가치》와 규범에 입각하여 대중국관계를 추진한다》는 조항을 박아넣어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신냉전》의 최대격전지로 만들려는 미국의 가치외교전략의 돌격대로 나서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이로부터 중국과의 필연한 갈등과 대립을 피할수 없게 되고 오히려 심대한 경제불복가능성만 높아졌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친미편중정책은 북과 중국, 로씨야를 견제하면서 패권적지위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욕구만을 충족시켜줄뿐이다. 미국이 강요하는 동맹강화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중국과 로씨야라는 거대한 이웃시장을 놓치는 폐착을 범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중국견제를 위한 다각적인 동맹구축

을 주력하고 유럽에서 나토의 대로씨야견제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신냉전질서》 확립에 적극 가담하는 것으로 하여 미국의 이익만을 챙겨주는 머저리짓을 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역도당이 미국식 《민주주의》와 《가치관》에 따른 가치외교를 내세우고 미국주도의 새로운 국제질서확립에 편입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은 스스로 외교적고립을 자초하고 미국의 지배권에 더 깊숙이 얽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윤석열역도당이 미국의 《가치외교》에 적극 추종하는 것은 뼈까지 들어찬 친미사대외교, 미국이라는 《쇠단지》가 조금만 다쳐도 산산조각나는 《흙단지》와 같은 자기를 지켜줄것이라는 어리석은 망상에 따른 것이다. 허욕과 망상에 따른 무모한 추태뒤에 따라오는 것은 수치와 비참한 과멸뿐이다. 윤석열역도당이 초보적인 분별력이라도 있다면 이제라도 쇠단지와 흙단지에 대한 고대그리스의 우화를 읽어보고, 또 미국의 가치외교에 적극 추종하는 저들에 대한 민심을 놓치는 폐착을 범하고 있는 윤석열역도의 행태를 새겨들고 제 할바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김문성

윤석열역도당이 경찰을 통제하고 장악하기 위한 《경찰국》을 행정안전부안에 정식 내운 것과 관련하여 남조선내부의 정치적혼란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집권하자마자 법무부와 검찰을 제 심복들로 꾸린 윤석열역도당은 경찰가들이 투위기를 위해 검찰출신들을 위주로 행정안전부안에 경찰제도개선추진위원회를 내온데 이어 얼마전에는 행정안전부안에 《경찰국》을 신설하였다. 역적패당의 이러한 책동이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경찰까지 장악하여 남조선을 말그대로 《검찰공화국》에 이어 《경찰공화국》으로 만들고 부패한 권력을 유지해보려는 반인민적, 반민주적행태라는 것은 더 말할 여지도 없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은 윤석열역도당의 경찰장악책동을 강력히 반대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역도당의 경찰국신설책동에 대해 검찰과 경찰을 앞세워 독재를 실시하겠다는 선전포고, 경찰을 정치에속화하려는 로골적인 반민주적행태로 단죄하면서 당안에 경찰장악지지대책단을 내오는 등 강하게 반발해나서고 있다. 한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행동,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경찰국신설을 주도한 윤석열역도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는가 하면 서울을 비롯한 여러곳들에서 윤석열역도의 경찰장악

윤석열역도당이 경찰을 통제하고 장악하기 위한 《경찰국》을 행정안전부안에 정식 내운 것과 관련하여 남조선내부의 정치적혼란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집권하자마자 법무부와 검찰을 제 심복들로 꾸린 윤석열역도당은 경찰가들이 투위기를 위해 검찰출신들을 위주로 행정안전부안에 경찰제도개선추진위원회를 내온데 이어 얼마전에는 행정안전부안에 《경찰국》을 신설하였다. 역적패당의 이러한 책동이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경찰까지 장악하여 남조선을 말그대로 《검찰공화국》에 이어 《경찰공화국》으로 만들고 부패한 권력을 유지해보려는 반인민적, 반민주적행태라는 것은 더 말할 여지도 없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은 윤석열역도당의 경찰장악책동을 강력히 반대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역도당의 경찰국신설책동에 대해 검찰과 경찰을 앞세워 독재를 실시하겠다는 선전포고, 경찰을 정치에속화하려는 로골적인 반민주적행태로 단죄하면서 당안에 경찰장악지지대책단을 내오는 등 강하게 반발해나서고 있다. 한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행동,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경찰국신설을 주도한 윤석열역도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는가 하면 서울을 비롯한 여러곳들에서 윤석열역도의 경찰장악

윤석열역도당이 경찰을 통제하고 장악하기 위한 《경찰국》을 행정안전부안에 정식 내운 것과 관련하여 남조선내부의 정치적혼란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집권하자마자 법무부와 검찰을 제 심복들로 꾸린 윤석열역도당은 경찰가들이 투위기를 위해 검찰출신들을 위주로 행정안전부안에 경찰제도개선추진위원회를 내온데 이어 얼마전에는 행정안전부안에 《경찰국》을 신설하였다. 역적패당의 이러한 책동이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경찰까지 장악하여 남조선을 말그대로 《검찰공화국》에 이어 《경찰공화국》으로 만들고 부패한 권력을 유지해보려는 반인민적, 반민주적행태라는 것은 더 말할 여지도 없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은 윤석열역도당의 경찰장악책동을 강력히 반대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역도당의 경찰국신설책동에 대해 검찰과 경찰을 앞세워 독재를 실시하겠다는 선전포고, 경찰을 정치에속화하려는 로골적인 반민주적행태로 단죄하면서 당안에 경찰장악지지대책단을 내오는 등 강하게 반발해나서고 있다. 한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행동,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경찰국신설을 주도한 윤석열역도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는가 하면 서울을 비롯한 여러곳들에서 윤석열역도의 경찰장악

윤석열역도당이 경찰을 통제하고 장악하기 위한 《경찰국》을 행정안전부안에 정식 내운 것과 관련하여 남조선내부의 정치적혼란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집권하자마자 법무부와 검찰을 제 심복들로 꾸린 윤석열역도당은 경찰가들이 투위기를 위해 검찰출신들을 위주로 행정안전부안에 경찰제도개선추진위원회를 내온데 이어 얼마전에는 행정안전부안에 《경찰국》을 신설하였다. 역적패당의 이러한 책동이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경찰까지 장악하여 남조선을 말그대로 《검찰공화국》에 이어 《경찰공화국》으로 만들고 부패한 권력을 유지해보려는 반인민적, 반민주적행태라는 것은 더 말할 여지도 없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은 윤석열역도당의 경찰장악책동을 강력히 반대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역도당의 경찰국신설책동에 대해 검찰과 경찰을 앞세워 독재를 실시하겠다는 선전포고, 경찰을 정치에속화하려는 로골적인 반민주적행태로 단죄하면서 당안에 경찰장악지지대책단을 내오는 등 강하게 반발해나서고 있다. 한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행동,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경찰국신설을 주도한 윤석열역도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는가 하면 서울을 비롯한 여러곳들에서 윤석열역도의 경찰장악

윤석열역도당이 경찰을 통제하고 장악하기 위한 《경찰국》을 행정안전부안에 정식 내운 것과 관련하여 남조선내부의 정치적혼란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집권하자마자 법무부와 검찰을 제 심복들로 꾸린 윤석열역도당은 경찰가들이 투위기를 위해 검찰출신들을 위주로 행정안전부안에 경찰제도개선추진위원회를 내온데 이어 얼마전에는 행정안전부안에 《경찰국》을 신설하였다. 역적패당의 이러한 책동이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경찰까지 장악하여 남조선을 말그대로 《검찰공화국》에 이어 《경찰공화국》으로 만들고 부패한 권력을 유지해보려는 반인민적, 반민주적행태라는 것은 더 말할 여지도 없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은 윤석열역도당의 경찰장악책동을 강력히 반대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역도당의 경찰국신설책동에 대해 검찰과 경찰을 앞세워 독재를 실시하겠다는 선전포고, 경찰을 정치에속화하려는 로골적인 반민주적행태로 단죄하면서 당안에 경찰장악지지대책단을 내오는 등 강하게 반발해나서고 있다. 한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행동,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경찰국신설을 주도한 윤석열역도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는가 하면 서울을 비롯한 여러곳들에서 윤석열역도의 경찰장악



## 인권으로 보는 권익한 두 현실

### 북반구는 삶을 누려가는 공화국의 여성들

여성들앞에 펼쳐졌다. 해방된 조선의 여성들을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갈 역군으로 키워주신 아버지수령님의 그 사랑, 그 믿음이 있었기에 전화의 나날 조옥희, 리수덕, 조순옥, 신도향과 같은 여성영웅들과 여성혁신자들이 수많은 배출되었다.

여성중시의 새 역사를 펼쳐시고 여성군인들과 군인가족들, 조국의 통성변영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는 여성들,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친자처럼 돌보아 주는 여성들,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는 여성들을 영웅으로, 애국자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사랑과 은덕에 대한 이야기들도 공화국인민은 길이 전해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보람찬 삶을 누려온 이 나라 여성들의 존엄과 영광은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계시여 더욱더 빛나고있다.

मुख소 어머니날을 제정하도록 해주시고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를 준비하던 나날에는 첫머리어린이들을 가진 어머니들도 대회에 참가할수 있게 축소에 탁아

를 내오도록 다심한 사랑의 조치를 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여성들이 신계 될 신발의 무게까지 몸소 저울에 달아보시고 평양산원리에 예기거저리와 함께 애용물소독종이까지 보내주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 사랑, 그 믿음속에 이 땅 그 어느 일터, 그 어디를 가보아도 안해로서, 어머니로서,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는 조국의 부강변영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는 공화국의 여성들이다.

그들중에는 부모없는 30여명의 아이들의 친어머니가 된 서혜숙고일성과 강선명의 처녀어머니 장정화녀성도 있고 특유영예군인의 일생의 길동무로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가는 김금희녀성과 같은 미더고 미풍의 주인공들도 있다. 어찌 이들뿐이겠는가.

여성중중의 화원이 펼쳐진 이 땅에서는 평범한 여성들이 영웅으로, 인민체육인으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박사로서, 온 나라가 다 아는 시대의 전형, 로력혁신자로 되고있다.

금메달로 조국의 존엄과 영예

를 빛내인 림정심, 림은심, 방철미선수들과 시대의 전형들이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직로공리명순, 황해북도인민병원 의사 김명월...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에서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가사우에 국사를 놓는 이 땅의 여성들의 훌륭한 정신도덕적풍모, 사회와 집단을 위해 헌신하는데서 보람과 행복을 찾는 이 나라 여성들의 진모습을 볼수 있다.

하기에 공화국을 방방하였던 유럽의 한 여성문제전문가는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에서는 여성들이 남자와 똑같이 노동의 권리를 향유하고있을뿐 아니라 사회적인간으로서의 발전권도 충분히 보장받고있다. 여성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사회생활을 할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조건을 보장해주는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는 서방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환상의 세계가 아닐수 없다.》

진정 여성중중의 화원에서 존엄높고 값높은 삶을 누려가는 공화국여성들처럼 행복한 여성들은 세상에 없다.

### 사회적평등으로 여성천시, 여성학대

여성천시, 여성학대가 하나의 사회적중로로 되어버린 남조선에서 여성들은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의 존엄은커녕 여성으로 태어난것이 오히려 죄가 되어 불행한 운명을 강요당하고있다.

외국의 한 언론이 2021년 여성들의 지위보장과 관련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순위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남조선이 제일 마지막자리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사회적평등과 천대를 받고있는 남조선여성들의 인권실태에 대한 평가이다.

남조선에서 전체 유권자의 반수를 차지하고있는 여성층은 채용, 임금, 사회활동 등에서 심각한 차별대우를 받고있으며 사회적으로 만연되고있는 각종 범죄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생존을 다루는 취업경쟁에서 여성들은 언제나 뒤자리로 밀려나고있다. 대학졸업증을 쥔 여성들속에서 실업자로 방황하는 대상이 90%를 차지하고있다고

한다.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는 경우에도 10명중 7명이 비정규직으로서 남조선사회의 고질적악폐의 하나인 비정규직제도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있다.

하기에 남조선에서 《여성들의 취직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하나의 유행어처럼 나돌고있다.

어떻게 취직한 여성들도 차별대우를 받기는 다름없었다. 한 여성단체가 여성사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승급은 물론 평가와 업무, 배치에서 차별을 받고있다는것이 밝혀졌다고 한다.

혹심한 차별대우속에서 일하다가도 경제체제와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의 대상에서 여성들은 의례히 첫번째 자리에 있다. 직장에서 해고된 여성들의 대다수가 20대, 30대로서 그 주된 리유가 결혼과 임신, 해산때문이다.

이때문에 여성들은 일자리를 메울가와 결혼과 해산을 극력 피하는 등 여성으로서의 초보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에서 여성들은 인권을 마구 짓밟히고 공공장소에서 거리낌없이 성희롱, 성폭행을 당하고있다.

특히 윤석열역적패당의 그릇된 정책으로 하여 남조선에서 여성친시풍조는 더욱 만연되어가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은 여성우대정책때문에 남성들의 기회가 줄어들고 하면서 남녀갈등, 여성혐오를 더욱 부추기는 반여성정책에 매달리고있다.

남조선의 여성운동단체들과 각종 여성들이 《성별갈등을 조장한 장본인들의 기만적인 속임수》, 《여성들의 삶을 목살하는 권력의 계속되는 반여성행태》, 《(국민의힘)은 여성혐오정당의 오명을 벗어 버리기 힘들것이다.》고 규탄배격하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여성들의 인격과 존엄이 무참히 짓밟히고 그로 하여 사회적난문제가 끊임없이 산생되는 현실은 남조선사회야말로 최악의 인권불모지, 여성들의 생지옥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 주인공들이 사랑하고는 《우리 인민》의 주인공

공화국에서 국가방역사업이 최대비상방역체제로 이행한 때부터 인민들의 편의보장을 위해 누구보다 드바른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가운데는 인민반장들도 있다.

지난 5월 서성구역 경정2동 82인민반에서 살고있는 한영애주인의 집에서 있는 일이다. 깊은 밤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나가보니 걸림심인민반장이 울리내리는 땀을 훔치며 먹음직스러운 호박을 내미는것이였다.

《이 늙은게 주책없이 한마디 한것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수고하다.》

과연 어떤 사연이 있어 그 깊은 밤 인민반장이 호박을 들고 그의 집문을 두드리게 되였는가.

그날 저녁에 주민세대들에 남새를 공급하던 인민반장은 구수한 호박장을 먹으면 좋겠다는 한영애 어머니의 말을 듣게 되였다. 그는 서둘러 남새상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호박은 없었다. 이미 다 판매되었던것이였다. 매일 아침에야 들어오는 판매원의 이야기를 뒤에 남기고 발걸음을 돌리는 인민반장의 눈앞에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떠날줄 불렀다. 여러곳을 돌아보며 호박을 구했을 때는 밤이 퍼 깊어서였다. 그러나 인민반으로 향할 그

의 발걸음은 나는듯이 가벼웠다. 이렇게 그는 주민들의 요구라면 무슨 일, 어려운 일을 가리지 않았다.

인민의 총부로서는 본분을 다해나가고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들중에는 동대원구역 새살림동 49인민반반장 김영희도 있다.

이곳 인민반원들은 김영희 인민반장을 가리켜 남을 도와주지 못하면 안라까와하는 사람, 불같은 인정미를 지닌 사람이라고 정답이 부른다.

지난 5월중순 인민반의 매세대들을 빠짐없이 돌면서 생활에서 걸린 문제들을 알아본 김영희는 2층 2호에 이르러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였다. 아버지는 출장을 가고 어머니마저 심하게 앓다 보니 집안에는 3살 난 딸을 돌보줄 사람이 없었던것이다.

그는 더 생각할새 사이이 이 집의 딸 라연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열이 오르기 시작하는 그에게 약을 먹인 다음 정성껏 간호하면서 벌식도 해주고 제미나는 옛이야기도 들려주며 돌보아주었다.

며칠후 라연이의 어머니가 병을 털고 일어나자 딸을 찾으며 왔다. 그런데 그새 열

이나의 혈액이 집집마다에 한시라도 더 빨리, 더 정확히 가달게 하기 위해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있는 각지의 인민반장들.

하기에 공화국의 인민들은 어려울수록 더욱 뚜렷이 부각되는 인민반장들의 역할에서 서로 도우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회주의대가정의 모습을 보고있다.

본사기자 전명진



### 독재문답

사회교육은 학교교육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보충하며 사람들을 자주위식과 창조적능력을 지닌 인간으로 키우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화국에서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와 함께 사회교육체계를 확립하고는 나라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있다.

공화국에서 사회교육은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청년회관, 과학기술당, 인민대학당, 도서관, 박물관 등 각지의 사회교육기관들과 과외교양기지에서 진행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평양학생소년궁전, 개성학생소년궁전 등 전국의 학생소년궁전들과 학생소년회관에서 예능교육, 컴퓨터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통하여 새세대들을 지체없이 준비하고 한가지이상의 재능을 갖춘 미래의 역군들로 키워내고있다.

10만여권의 장서능력을 가진 도서관과 컴퓨터실, 수영관, 체육관, 야외수영장, 로라스크레장, 자동차운전실습장들을 갖추고 하루 수천명의 수용능력을 가진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는 한해에도 수십만명의 학생소년들이 과외교육을 받고있다.

이 궁전에서만도 수많은 과학자후비, 예술인후비, 체육인후비들과 애호가들이 나왔다.

인민대학당당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라 나라의 중요한 사회교육기지이다.

전민학습의 대전당 인민대학당에서는 근 40여년간 연 수천만명에 대한 각

### 재중동로 김희영선생이 제기한 질문

공화국에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장들을 갖추고 하루 수천명의 수용능력을 가진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는 한해에도 수십만명의 학생소년들이 과외교육을 받고있다.

이 궁전에서만도 수많은 과학자후비, 예술인후비, 체육인후비들과 애호가들이 나왔다.

인민대학당당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라 나라의 중요한 사회교육기지이다.

전민학습의 대전당 인민대학당에서는 근 40여년간 연 수천만명에 대한 각

종 열람봉사 및 교육을 진행하고있다.

전민학습의 중심지인 인민대학당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도서관은 1946년에 비하여 수십배로 장성하였다.

일제의 악랄한 식민지유민화정책으로 인제가 얼마 없었던 조선이 오늘날 당과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으로 민족근부양성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고 수백만명의 지식인대군을 가지게 되었으며 전체인민이 배우는 교육의 나라로 세상에 이룩할수 있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최신과학기술보급사업, 대규모적인 전자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고있는 과학기술당과 보다 훌륭하게 꾸려지고있는 전국적의 소년단야영소들과 학생소년궁전을 비롯한 과외교양기지는 후대교육사업과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본사기자

###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산업미술분야의 재능있는 창작가

조선산업미술창작사에는 다양하면서도 특색있는 도안들을 창작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한몫 단단히 하는 실력있는 창작가들이 많다.

그들중에는 경공업제품도안과 상업미술도안 등 여러분야의 도안창작에서 두각을 나타내고있는 김진순실장도 있다. 어떤 주제의 산업미술도안이든지 다재다능하고 불라는 창작열을 지닌 그의 손이 가달기만 하면 명도안으로 완성되곤 한다.

하나의 도안을 창작해도 새롭고 특색있는 도안으로 되게 하자!

이것은 그가 도안창작에서 견지하고있는 원칙으로 되고있다.

연필도안과 승마경기에서 우수한 선수들에게 수여할 메달도안, 향나무상식도안 그리고 유치원어린이가방도안, 소학교학생가방도안, 초급중학교학생가방도안, 대학생가방도안들을 비롯하여 그가 창작한 수많은 명도안들은 그의 남다른 창작적열정과 탐구, 기발한 착상이 낳은 산물이다.

그가 창작한 도안들가운데는 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의 생활과 관련한 도안들이 적지 않다. 그는 아이들속에 들어가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들을 관찰하면서 하나하나 속사해놓았다가 도안창작에 리용하곤 한다.

몇해전 그가 아이들을 위한 연필도안창작을 할 때였다. 연필도안에 아이들의 중심을 어떻게 반영할것인가 하고 고심을 거듭하던 어느날 그는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면서 눈이 계속 오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것을 듣게 되였다. 그 말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하얀 눈을 도안창작에 반영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착상이 떠올라 푸른색 바탕에 아이들의 꿈을 두들길 실어간다는 뜻에서 등근구름과 눈결정체를 형성하여 연필도안을 창작하였다.

언제인가 길을 가다가 앞서 가던 소학교 학생이 가방을 떨어뜨리고는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한쪽 주머니는 물병을 넣어도 편안하게 리켜주고 다른쪽 주머니는 수첩이나 필기도구를 넣어도 떨어지지 않게 소학교 학생가방도안을 창작한 김진순실장이였다.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방마크도안을 창작할 때였다. 과업을 받고 욕망만 앞세우다

원수님께서께서는 공방마크를 감자가 위생모를 쓰고있는것으로 형성하였는데 멋있다고 치해주시었다.

이렇게 그는 산업미술분야에서 일해온 근 20년간 1 200여점의 도안들을 창작하였다. 그중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산업미술도안들은 180여점이나 된다.

김진순실장 (왼쪽)



본사기자

평양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신석기시대의 질그릇가마터



대동강을 따라서 평양의 역사유적을 찾아가는 우리의 걸음은 삼석구역 호남리로 향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표대유적에서 발굴된 신석기시대의 질그릇가마터를 찾아볼수 있었다.

대동강을 옆에 끼고있는 호남리질그릇가마터는 지금으로부터 약 6천년전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그곳을 구워내던 곳이었다.

동행한 림금석 평양시민족유산보존사 실장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이곳 가마터를 돌아보았다.

그의 말에 의하면 호남리 질그릇가마터는 우리 민족의 성지인 평양에서 발견된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신석기시대의 질그릇가마터라고 한다.

가마터의 크기는 전체 길이가 300cm정도이고 너비는 넓

질그릇조각들과 석기들이 나왔다고 한다.

우리 선조들이 만든 신석기시대 질그릇의 특징은 거의 모든 질그릇들이 갈색이며 그 형태와 장식부늬가 매우 다양한것인데 이것은 우리 문화의 독자성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으로 된다고 림금석실장은 말하였다.

그는 《우리 선조들은 B.C. 3 000년경부터 연질계의 도기를 제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 기술을 더욱더 발전시켜 연질도기로부터 경질도기를 생산하였으며 이 과정에 도기에 유약을 입히는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였습니다. 이처럼 고려자와 같은 세계적인 문명의 전통은 이미 신석기시대부터 창조되기 시작하였습니 다.》라고 말하였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나라가 밀레식가마에 의한 질그릇소성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중의 하나였으며 평양지방이 질그릇제작과 보급에서도 선도적이며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왔다는것을 잘 알수 있었다.

장숙영

광범히 리용되는 스마트카드조작체계

《울림》4.0

최근 공화국의 평양정보기술국 카드연구소에서 개발한 스마트카드조작체계 《울림》4.0이 사람들속에서 광범히 리용되고있다.

지난 기간 이곳 연구소의 개발집단은 스마트카드조작체계의 세계적발전추세에 맞게 현재의 카드에 여러개의 카드 응용프로그램을 적체할수 있게 하는 열린형의 조작체계개발사업에 힘을 넣었다.

사용자들의 편의를 적극 도모해주는것을 목적으로 이번 에 개발된 열린형의 스마트카드조작체계 《울림》은 사용자들이 여러개의 카드를 구입하지 않고 현재의 카드에 그와 관련된 여러가지 업무를 진행할수 있다.

개발집단이 스마트카드조작체계를 개발하는 과정에 해결한 과학기술적문제들가운데서 주목되는것은 카드발급 및

응용프로그램판리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을 실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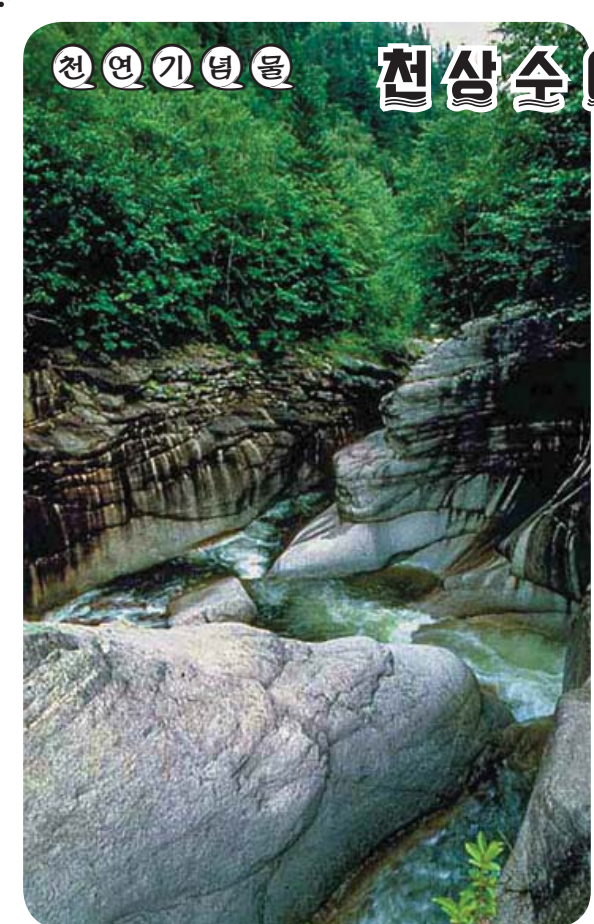
즉 비법적인 카드와 응용프로그램이 설치될수 있는 공간과 응용프로그램을 비법적으로 갱신하거나 삭제할수 있는 공간을 막기 위한 방법을 설계하고 실현하였다.

또한 카드의 유효사용수명을 늘이고 카드에 보관된 자료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실현한것이다.

스마트카드조작체계 《울림》4.0이 개발됨으로써 어떤 스마트카드제품이라 할지라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로 개발할수 있는 확고한 기술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스마트카드조작체계 《울림》4.0은 제35차 전국과학기술추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본사기자



천연기념물 천상수아흔아홉굴이

천상수아흔아홉굴이는 함경북도 연사군 삼포리에 있는 천연기념물이다.

관모봉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연면수의 지류인 천상수가 흐르는 골짜기에 있다.

천상수부근에는 관모봉, 도정산 등 해발고가 높은 산들이 있다.

높은 곳에 있어 천상수라고 하며 바위가 드러난 굴이 많다 하여 아흔아홉굴이라고 한다.

천상수를 아흔아홉굴이동굴이라고 한다.

이 들강은 화강암에 틈이 생기고 그것이 물에 패이면서 깎여 구불구불하다.

천상수아흔아홉굴이는 바다도 측면도 모두 암반으로 되어있다.

장마철에는 물살이 매우 빠르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가을철에는 곳곳에 크고작은 등근 돌들이 드러난다.

천상수아흔아홉굴이는 학술적으로 매우 의의가 있는 천연기념물이다.

본사기자



2021년 10대최우수교원

남포사범대학 환경과학부 생물화학강좌 강좌장 장경일



하였다.

이와 함께 전공분야의 실용성있는 교과서들을 여러권 집필완성하였으며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발전시켜 전국사범대학들의 련합강좌모임을 통한 학술토론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만도 그는 창조형, 실천형의 인재들을 키우는데 이바지하는 사범대학

용 새 교재들을 집필완성하고 우월한 교수방법들을 창조 도입하여 전국에 일반화하였으며 가치있는 실험기구들과 모의실험프로그램들을 제작하였다.

이 나날 그는 여러개의 새 교수방법등록증과 교육과학기술부등록증을 수여받고 10월 8일모범교수들의 영예를 지니게 되었으며 제14차 전국교

원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었다.

2021년 10대최우수교원으로 선정된 그는 오늘도 후대들을 유능한 창조형의 인재로 더 잘 키우기 위해 교수사업에 혼신을 다 바쳐가고 있다.

본사기자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

길쌈

누에를 길러 천을 짜다는 기록이 있는것으로 보아 우리 민족의 고대국가들에서 배, 모시는 물론 뽕누에를 쳐서 명주도 짜다는것을 알수 있다.

길쌈은 세나라시기를 거쳐 고려시기에 와서 가내수공업으로 더욱 발전하였으며 비단을 짜는 잡직서, 염색을 하는 도염부까지 두고 많은 천을 생산하였다.

고려의 모시는 화문저포, 적문저포라 하여 높이 평가되었는데 이웃나라에서는 고려의 백모시가 하도 섬세하고 꽃문양까지 새겨져있어 그 직조기술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고 한다.

고려말 목욕가 생산되면서 무명날이도 발전하였다. 무명은 배, 모시, 명주에 비하

여 품을 적게 들이고도 많은 천을 생산할수 있고 질기면서도 보기도 좋아 사람들의 입는 문제에서 일대 변혁을 가져오게 하였다.

길쌈은 주로 농촌여성들이 하였으며 많은 경우 공동생산형태를 띠었다.

그 규모와 시기는 길쌈재료와 지방에 따라 달랐으나 여성들이 한 곳에 모여 한집의 것을 한 다음 차례로 돌아가면서 하는것이 공통적이었다.

공동으로 길쌈을 하고 길쌈이 끝난 다음

집체적으로 모여 노래하고 춤을 추며 노는 유희하고 활달한 민속무용인 《길쌈놀이》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배는 함경도지방, 명주는 평안도지방, 모시는 충청도지방, 무명은 경상도지방의것이 유명하였다.

본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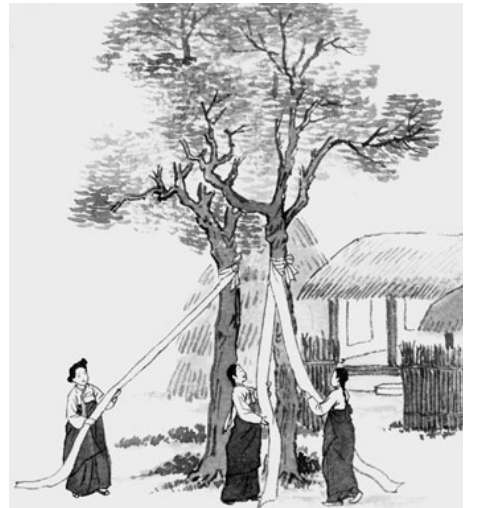


그림 《길쌈놀이》

랭동기보관을 고려해야 할 과일과 남새

—가지를 2~3일 보관할 때에는 방안온도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도마도는 먹기 전에 랭동기에 넣었다가 차가워지면 인차 꺼내먹는것이 좋다.

—바나나를 랭동기에 넣으면 색이 검게 변한다. 그러므로 바나나를 종이로 싸서 서늘한 곳에 두는것이 좋다.

너무 익은 바나나는 껍질을 벗겨내고 속만 비닐봉지

에 넣어서 인차 랭동시켜 랭 과일로 먹을수 있다.

—감자, 고구마, 양파는 랭동기에 넣으면 농마가 당으로

변하면서 영양가와 맛이 떨어 지므로 랭동기에 넣어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속담과 뜻

◆ 썩은 고목은 툇 치면 넘어간다.  
높고 주대없는 사람은 한번 으르거나 열리면 요구하는 사람쪽으로 기울다는것을 형상적으로 비쳐 이르는 말.

◆ 날개 부러진 독수리  
날아다니는 용맹스러운 독수리가 날개가 부러져 더는 날수 없게 되었다는 뜻으로서:  
① 재능과 힘을 발휘할수 없게 된 사람을 비쳐 이르는 말.  
② 제함과 용맹을 믿고 우쭐대다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사람을 보고 비꼬아 이르는 말.

◆ 허리부러진 장수  
허리가 부러져 운신조차 못하는 장수라는 뜻으로서 제 마음대로 활동할수 없게 되어 기가 꺾인 사람을 두고 비웃어 이르는 말.

늘 자기의 가난함을 닮아는 젊은이가 있었다.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그는 대뜸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제발 나에게 많은 돈이 있었으면, 그렇게만 되면 일생을 편안하게 살게 아닌가?》

《천만에.》 젊은이가 신경질적으로 대답하였다.  
《무슨 당치 않은 소리를 하는거요? 난 내 눈을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수 없소.》  
《그렇다면...》 석공이 말을 이었다.

일화

가장 귀중한 재부

어느날 그가 친구를 불렀고 또 이 말을 하고 있는데 한 석공이 그들의 걸을 지나치다가 그의 말을 듣게 되었다.

석공이 물었다.  
《자네 뒤가 부족해서 항상 불평을 부리는가? 내보기엔 자네 이미 부자나 같네.》  
《뭐라고요? 내가 부자라고요?》  
젊은이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반문하였다.  
《그러면 나의 재부는 어디 있소?》  
《하하하, 내가 알려주지.》  
석공이 껄껄 웃으면서 말하였다.  
《먼저 자네의 눈부터 말하자구. 자네 한쪽 눈을 둔이나 물건과 바꿀수 있나?》

《네가 자네에게 많은 돈을 주겠으니 자네의 손을 도끼로 잘라도 되겠나?》  
《후.》 젊은이가 어찌구무가 없다는듯 말하였다.  
《손이 없으면 다음에야 돈이 무슨 필요가 있소?》  
그러자 석공이 얼굴에 웃음을 가득 담으며 말하였다.  
《옮겨서, 그러니 보라구. 자네가 얼마나 부유한가를 말하네. 현대 왜 자기가 가난하고 불행하다고만 불평을 하나?》  
내 말을 명심하게. 사람에게서 화과 건강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보물일세. 돈으로도 이것들은 살수가 없어.》  
말을 마친 석공은 활개를 치며 자리를 떠났다.

사화

마지막 발명품 (4)

글 리성덕, 그림 채대성

그제야 영실은 잠을 자지 못하여 빨갛게 피말이 선 눈을 크게 뜨며 천천히 허리를 꼰다.

《상감께서 친림하셨네.》  
《상감께서?》  
또 한번 되물어보는 영실은 상감님이라는것이 무슨 말인지 분명 깨닫지 못한 모양이었다.

《아니, 왜 그러고 있나? 어서 의관을 바로잡고 상감님을 맞이해야 할게 아닌가?》  
그제야 얼얼 입금이 서있는 문쪽을 바라본 영실은 황급히 옷저고리를 찾아입고 꾸그러는 것을 썼다.

《아, 상감님께서 오시었는데 내가 왜 이리하고있을까? 보았잖은 나를 대궐로 부르시어 큰일을 맡기고 밝은 빛을 보게 해주시었는데 상감마마를 몰라봐서야 안되지.》  
영실은 한순간이라도 입금을 잊고있는 자신이 더없이 죄스럽게 느껴졌다.

《상감마마!》  
영실은 급히 문밖으로 달려나가 입금의 받치에 엎드렸다.

《상감마마, 소인 장영실이 문안드립니다.》  
《오냐, 영실이나?》

세종은 빙그레 웃었다.  
《어찌 이리록 무추한 곳으로 친림하시오이까. 실로 황감하오이다.》  
《허허... 별말을 다 하는구나. 영실이 일하는 곳인데 어찌 무추하고 말고 할게 있느냐.》  
《예, 소인은 있는 힘을 다 하여 장치를 설계하고있사옵니다. 현대 다른것은 별것 없으나 흘러내리는 물량을 고르롭게 하는 일이 가장 어려우나 하옵니다. 그 룯에 물이 많을 때면 더 많이 흘러나가고 적게 있을 때면 천천히 흘러나갑니다.》  
《흠, 그렇겠구나.》  
세종은 머리를 끄덕이면서 장영실의 피로에 잠긴 파리한 모습을 이윽히 바라보았다.

《동서고금에 중한 일치고 쉽게 이루어진적이 없느니라. 조금도 락심치 말고 지혜를 바치면 꼭 뜻을 이룰 날이 있을게다. 그러니 오늘은 잠깐 피곤도 풀겸 밖에 나가 시원한 바람을 쐬이게 어떻겠느냐?》

세종은 궁담밀 양지쪽에서 한창 피어 향기를 풍기는 복숭아꽃을 바라보며 발자국을 메었다.

영실은 꽃이 핀것을 오늘 처음 보았다.

그렇지만 아름답다는 생각보다도 벌써 시절이 이렇게 흘러갔구나 하는 조급한 마음만 앞섰다.

《상감마마, 소인은 그만 하던 일을 마저 할가 하옵니다.》  
두어발자국 옮긴 세종은 놀라운듯 뒤를 돌아보았다.

《하하... 장영실이 미쳤다는 소문이 이래서 난것이로구나. 네가 이다지도 일에만 음해있으니 어찌 충성스럽다 하지 않겠느냐. 실로 가혹한 일이로다.》  
《황송하오이다.》  
영실은 몸뚱이를 몰라하

나?》  
《상감마마, 외람된 말씀이오나 소인은 굳이 장가를 들어야 할 까닭이 없사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장가를 들어 안해를 맞이하면 부부지정도 맞출것이요, 자식도 얻을리인데...》  
웬 일인지 영실은 대답을 못했다. 흥조가 피어올랐던

그의 얼굴에서 점차로 피기가 가시지고있었다.  
《어서 말씀드리게.》  
옆에서 듣고있던 리천이 일깨워주어야 영실은 나직한 소리로 침착하게 대답하였다.

《소인에게 락이 있다면 오직 한가지 기술을 바쳐 새로운 문물을 이루어놓는것뿐이옵니다. 그밖에는 한생 다른 락은 구하려 하지 않소이다. 그리고 자식에 대해 말씀이 없다면 소인은 천한 몸이라



중자식이 생기는것을 바라지 않사옵니다.》  
영실의 목소리는 비통하게 떨리었다.

《영실은 이미 상의원 별파로서 5품관인데...》  
세종은 말을 하다가 말고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옆에 있는 리천도 이 대목에 이르러서는 질질 아무것도 듣지 못한채하였다.

천한 노비의 인명이 바로 이리하므로 입금도 참관도 더는 그 이야기로 이어나가기를 꺼려한것이였다.

이날 세종왕은 별로 긴요치 않은 말을 얼마간 더 하고나서 근정전으로 돌아갔다.